

사우디,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우려 증폭

사우디, 미국과의 우호관계 점차 악화

사우디는 미국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다른 아랍국들과 마찬가지로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유엔(UN)이 지지하지 않는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여 최근 사우디 정부는 UN의 승인이 없는 이라크 공격시 미국이 사우디의 영토와 영공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 관계는 지난 9.11 테러사태 이후 계속 불편한 상태였으며 더구나 2002년 8월 사우디를 적국(enemy state)으로 표현한 미국 랜드(Rand)연구소의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국 관계의 불편한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의 이라크 무력공격이 시작될 경우 사우디가 자국내 미군 기지의 사용을 불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이라크 집권세력 교체에 대해 불안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사우디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전쟁 발발 후 국내 소요 발생에 대한 두려움 외에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제거된 후 이라크의 집권세력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한 후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세운다면¹⁾, 시아파가 집권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라크 집권당은 바트당(Arab Baath Socialist Party)으로 소수파*인 수니파가 지배하고 있다. 즉,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 정부의 세력균형이 현재의 수니파에서 시아파와 쿠르드족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시아파와 쿠르드족은 이라크 총인구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이라크는 이슬람 국가로서, 수니파가 43%, 시아파가 52%, 기독교가 5%를 각각 차지

한편, 같은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에서는 이라크와는 달리 시아파가 소수파이다. 즉, 사우디에서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각각 90%와 10%를 차지하고 있다.

1)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후 18개월 이상 군정을 실시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2003.1.5자)

따라서 이라크에서 시아파가 집권할 경우 사우디의 시아파와 동조하여 정치 세력화한다면 사회 불안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우디는 이라크에서의 시아파 집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우디의 시아파들은 주로 유전이 몰려 있는 사우디 동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사우디 정부의 우려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사우디, 이라크가 몇 개의 독립국가로 분열되는 것도 우려

둘째, 사우디 정부는 미-이라크 전쟁 후 이라크가 몇 개의 독립국가로 분열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라크 남부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시아파들은 사우디와 접경지역인 남부지역에 독립국가를 건설할 것이고 시아파가 지배하고 있는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우디 정부에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라크 분열에 대한 우려는 터키와 시리아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거주지가 독립하면 터키 동남부와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쿠르드인들과 연합하여 쿠르드 독립국가 건설이 추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사담 후세인에게 가족들과 함께 망명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무력공격에 반대하는 것이고, 미국이 군사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면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한 후, 미국이 이라크를 직접 통치하여 이라크내 인종간·종교간 세력균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對이라크 정책은 이라크의 안정과 이란에 대한 견제, 터키와 사우디의 우려 해소를 위해 이라크를 현 상태의 단일국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연구원 황수영(☎3779-6655)
E-Mail : sooyhwang@koreaexim.go.kr